

#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s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이 연 옥(Yeon-Ok Lee)\*

### 〈 목 차 〉

I. 서 론	1.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정비와 강화
II. 어린이사서의 개념 및 역할과 자질	2. 재교육과정의 정비와 강화
1. 어린이사서의 개념	3. 어린이봉사 분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2.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자질	4. 관련 기관 및 관련 학문과의 교류와 협력
III. 어린이사서의 현주소	VI. 결 론
IV. 어린이사서의 양성실태	
1. 교육과정	
2. 재교육과정	
V.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개발 방안	

### 초 록

이 연구는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역할을 살펴보고, 어린이사서의 양성과 관련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어린이사서의 전문성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어린이사서,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서재교육, 사서교육

### ABSTRACT

This study is arguing about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For this, I investigated the conditions of operation in the cours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ontinuing education related to the training of children's librarians. Furthermore, I analyzed their problems. After this, I suggested the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Key Words: Children'S Librarian, Children Library, Public Library,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disfeel@hanmail.net)

• 접수일: 2005년 8월 16일 • 최초심사일: 2005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9월 5일

## I. 서론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면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안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전국에 여덟 곳이나<sup>1)</sup> 세워졌고, 서울지역의 노원어린이도서관, 구로꿈나무도서관, 서초어린이도서관과 같은 공립도서관을 비롯하여 경기지역에 광명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영통반달어린이도서관, 수원한아름도서관, 부천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이, 부산지역에서도 부산여대매직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였다.<sup>2)</sup>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06년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006년까지 16개의 어린이전용도서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어린이도서관의 확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실을 새롭게 확충하거나, 기존 어린이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개인 및 단체나 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문고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의 설립이 확산되자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사서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어린이사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도서관현장에서도 어린이사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어린이사서의 자질을 비롯한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어왔지만 정작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에게도 특별히 요구하는 자질조건이 없는 것이 현재 도서관현장의 실정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 담당은 경력이 짧은 신참사서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서비스의 업무강도가 강해 사서들이 기피하는 업무 일순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에 대한 재교육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나 사서재교육과정이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미흡하지만 한 현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사회의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증대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

1) 현재 순천, 제천, 진해(이상은 2003년에 개관), 서귀포, 제주, 청주, 울산북구(이상은 2004년에 개관), 금산(2005년에 개관)에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 개관되어 있다.

2) 각 도서관의 개관년도는 다음과 같다. 노원어린이도서관(2002년), 구로꿈나무도서관(2004년), 서초어린이도서관(2005년), 광명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2003년), 영통반달어린이도서관(2004년), 수원한아름도서관(2004년), 부천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2001년), 부산여대매직어린이도서관(2003년)

각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사서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자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교육과정이 도서관현장에서 어린이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그 여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현장에서 요구되는 어린이사서의 전문성개발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껏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있어 왔으나 어린이전문사서의 배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체제를 마련하는 일은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와 도서관현장의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내에 어린이사서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문헌정보학과의 관련 교과목의 개발과 편성을 촉구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문헌정보학계의 논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II. 어린이사서의 개념 및 역할과 자질

### 1. 어린이사서의 개념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이전에 어린이사서란 무엇이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어린이사서(children’s librarian)’란 ‘어린이도서관(children’s library)’의 관리, 운영 및 어린이에 대한 봉사 와 독서지도를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서를 의미한다.<sup>3)</sup> 그렇다면 어린이도서관(children’s library)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리를 통해 어린이사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도록 하자. ‘어린이도서관(children’s library)’은 어린이를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sup>4)</sup> 현재 이들 어린이도서관은 교육기관에서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도서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어린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이를 어린이 및 교육자가 이용

3)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228.

4) 어린이도서관의 봉사대상은 영유아,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어린이, 어린이의 부모와 가족, 보호자 어린이 교육을 비롯하여 어린이 책과 미디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성인들이 포함된다. IFLA, Section of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2).

하기 편리하게 조직하고 운영관리하며 봉사하는 교육시설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어린이를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하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를 조직하고 운영관리하며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공공시설이다.<sup>5)</sup> 현재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도서관은 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혹은 어린이코너<sup>6)</sup> ② 어린이교육기관의 도서관(초등학교도서관 유치원도서관) ③ 독립된 어린이전용도서관 ④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문고로 그 유형이 세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개념에 근거해서 볼 때, ‘어린이사서’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및 어린이코너를 비롯하여 독립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문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를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7)</sup> 그렇다면 이들 어린이사서들은 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 2.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자질

도서관현장에서도 문헌정보학계에서 어린이봉사와 더불어 어린이봉사를 책임지는 어린이사서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사서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역량과 나아가서 어린이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봉사 사서로서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sup>8)</sup>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이봉사를 위한 사서로서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문헌에서 나타난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FLA는 어린이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요건으로 “열정, 커뮤니케이션능력, 업무협력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술선수범하며 변화에 유연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봉사와 프로그램을 계획 관리 평가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 등 일반 사서직이 가져야 할 능력과 덕목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라는 이용자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아동심리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독서개발과 독서교육의 원리와 예술 및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며, 어린이책과 미디어에 대해 이해”<sup>9)</sup>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5) 김효정, “어린이도서관의 문제점,” 도협월보 제7권 제2호(1966, 3), p.23.

6) 공공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어린이실을 두어 봉사하는 경우와 어린이자료와 봉사를 성인자료와 함께 통합하여 봉사하는 경우가 있다. 통합하여 봉사하는 경우는 어린이코너를 두어서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어린이사서는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하기에, 학교도서관 특히 초등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서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제외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8) Sheila G Ray, *Children's Librarianship*(London: Clive Bingley, 1979), p.31.

9) IFLA, Section of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2).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도 교육조건 및 개인적 자질을 중심으로 어린이사서에 대한 자격요건을 1963년에 이미 밝혀 놓은 바 있다. 어린이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학교(library school)에서 일반적인 도서관학 과목뿐만 아니라 어린이봉사와 관련된 전문화된 세부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도서관학교 졸업이후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최소한 6년에서 8년 정도의 어린이서비스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를 좋아할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어린이봉사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sup>10)</sup>

이후 미도서관협회에서는 1999년에 협회산하 어린이서비스분과(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ALSC)를 중심으로 어린이사서의 역할을 7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1. 유아, 어린이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론, 어린이 및 부모, 어린이와 관계된 성인들을 비롯한 **이용자에 대한 지식**
2. 어린이서비스의 계획, 개발, 실행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 능력**
3. 도서관의 고객인 어린이 부모 등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4. 어린이자료 및 출판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자료를 개발 선정 평가 제적하는 **장서개발기술과 능력**
5.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프로그램 능력**
6. 어린이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 주장 및 옹호를 비롯한 **도서관서비스의 PR과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능력**
7.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노력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사서가 구비해야 할 능력과 자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봉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을 밝히고만 있을 뿐이며, 한국도서관기준에서도 공공도서관에 아동전담사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만 언급할 뿐 어린이사서의 자격요건이나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2003년에 개정된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봉사〉

- 공공도서관은 아동전담 사서를 배치하되 특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봉사활동

10) ALA, *Standards for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1963), p.17.

11)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ALSC), A Division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mpetences for Librarians Serving Children in Public Libraries*(1999).

1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2003).

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중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시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작문·드라마·미술·음악·인터넷활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식과 상상력의 산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창의력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부모에게 도서관이용법, 자료이용법, 인터넷정보검색법 등을 가르치고 독서지도와 독서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시기를 감안하여 그들의 요구와 관심 및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청소년봉사에 적합한 인력과 자료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봉사활동을 계획·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직원구성, 개관시간, 시설, 자료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학교 및 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한편,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연구한 관련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버틀러는 어린이사서는 어린이 개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며, 아동심리학 분야의 배경과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어린이자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관련 기관과의 협력능력과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밀러도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특성에 대한 지식과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한 봉사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어린이책의 출판경향과 현황에 대한 파악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이해와 학교와의 협력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sup>14)</sup>

헨위크의 경우, 어린이자료에 대한 평가능력,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어린이문학에 대한 이해, 학부모, 교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어린이관련기관이나 인적자원들에 대한 자문과 정보봉사능력, 어린이발달과 교육심리에 대한 이해, 독서교육능력 등이 어린이사서가 가져야 할 자질이라 주장한다.<sup>15)</sup>

한편, 일본의 ‘아동서비스론’의 저자 호리카와 테루요는 어린이사서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3) Florence Bulter "Children's Library and Librarianship,"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1967), pp.559-570.

14) Marilyn Miller, "Children's Service," in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1981), pp.132-134.

15) Sara Innes Fenwick, "Education of the Media Specialist : Variations on a Common Theme," *School Library Journal*, Vol.16(April 1969), p.1725.

서는 어린이가 처한 사회환경을 이해해야 하며, 어린이문화 현황을 비롯하여 어린이교육과 출판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어린이와 관련된 미디어 정보에 능통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사서가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어린이관련 자료에 능통하고 ② 어린이자료의 수집, 관리, 평가를 이해하며 ③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 교육관계자 등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④ 독서상담, 참고봉사, 집회행사, 전시, PR 등의 활동에도 능통하여야 하며 ⑤ 어린이와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겸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6)</sup>

이와 더불어 최근 왈터는 어린이사서 5법칙의 개발을 통해 어린이사서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이를 정리하면, 첫째, 도서관과 어린이사서는 모든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독서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부모를 비롯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성인들에게도 어린이관련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사서는 적합한 책과 정보를, 적합한 어린이에게, 적합한 장소에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사서는 책, 정보, 아이디어, 정보기술에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사서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사서는 자신의 과거를 숭상하고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이같이 왈터는 다섯 가지 법칙을 통해 어린이사서가 가져야 할 자질과 수행해야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사서의 자질 및 역할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연구로서는 한윤옥, 김병주, 박옥화, 김효정의 연구가 있다. 먼저, 한윤옥은 어린이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① 어린이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머감각이 있어야 한다 ③ 성품이 부드럽고 건강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와 책을 좋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친구처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⑤ 어린이문학자료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린이와 책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sup>18)</sup>

그리고, 김병주는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어린이 심리에 대한 이해,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비롯한 어린이를 위한 각종 문화적 교육적 프로그램의 계획과 제공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린이사서에게 요구된다고 강조한다.<sup>19)</sup>

또한 박옥화는 어린이도서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둘째, 어린이를 이해하고, 셋째, 아동문학에 밝으며, 넷째, 사서 자신이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인품을 갖추는 것이 어린이사서에게 필요하다고 기술한다.<sup>20)</sup>

김효정이 제시하는 어린이사서의 자질조건은 보다 구체적이다. 그녀는 어린이사서는 도서관전문

16) 堀川照代, 児童サービス論, 新訂版(東京: 日本図書館協會, 2005), pp.111-113.

17) Virginia A. Walter, *Children & Libraries: Getting It Right* (Chicago: ALA, 2001), p.123.

18) 한윤옥,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담당사서의 자질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41권 제1호(1986, 2), p.20.

19) 김병주, “공공도서관 아동봉사 사서의 직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논문집 제1권(1993), pp.182-184.

20) 박옥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사회과학논총(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8권(1997, 12), pp.94-96.

직과 어린이교육전문직의 양 자격을 우선으로 구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사서는 어린이성장발달, 어린이의 심리와 특성, 어린이요구와 흥미, 어린이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이해하는 등의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사서는 어린이 자료(책, 시청각, 전자자료), 국내외어린이문학(고전과 현대), 어린이문학사상사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문학과와는 다른 작품분석·비평·평가 및 서지통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린이책과 출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도서관운 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업무, 어린이도서관의 계획과 운영, 어린이도서관봉사, 자료조직 등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1)</sup>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역할의 공통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어린이 사서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 어린이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 어린이와 어린이자료를 매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사서는 이 세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훈련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어린이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역할을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

-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정, 어린이 심리에 대한 이해
- 어린이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독서능력의 발달에 대한 이해
- 어린이 흥미와 요구에 대한 지식
- 장애인, 빈곤층 등 소외계층 어린이의 요구에 대한 이해
- 부모, 보호자를 비롯한 어린이와 관련된 성인의 요구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관련된 요구의 이해
- 어린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의 이해

#### ②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

-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어린이책, 오디오비디오자료, 웹사이트, 전자자료 등에 대한 이해)
- 어린이자료의 선정과 개발
- 어린이자료의 평가
- 어린이자료의 서평
- 어린이독서자료의 선정과 추천
- 어린이자료의 분류 및 목록과 색인
- 어린이책 출판과 유통에 대한 이해와 관련기관과의 교류

21) 김효정,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대논문집(인문과학편), 제32집(1989), pp.85-86.



### ③ 어린이와 어린이자료의 매개능력

-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관리
- 어린이서비스의 조직과 관리
-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설계와 계획
- 어린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독서지도, 독서상담, 독서치료, 독서클럽, 스토리텔링, 북토크, 각종 모임 등 어린이의 상상력과 인지를 개발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개발)
- 어린이를 위한 정보서비스
- 어린이와의 커뮤니케이션
- 어린이의 정보활용능력 및 정보기술의 교육
- 지역사회 어린이관련 교육 및 문화기관 등과의 협력과 지원
-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관이나 부모, 보호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계획과 실행

## Ⅲ. 어린이사서의 현주소

앞서 연구자는 어린이사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자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사서는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이자, 어린이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린이와 책을 매개하는 독서지도자 혹은 독서상담자면서 어린이의 교육적 문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기획가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린이사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의 어린이사서들에게 눈을 돌려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는 실정이다. 4년제 대학, 혹은 2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여 정사서나 준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1명의 사서가, 많게는 2명의 사서가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전용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사서수가 다르게 나타난다.<sup>22)</sup>

22) 현재 어린이전용도서관은 공립어린이도서관으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사서 11명), 노원어린이도서관(사서 3명), 구로꿈나무어린이도서관(사서 4명), 서초어린이도서관(사서 2명), 광명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사서 2명), 영통반달어린이도서관(사서 1명), 수원한아름도서관(사서 1명), 각 지역의 기적의도서관(순천 제천 진해 제주 울산 북구 기적의도서관은 2명, 청주는 3명, 서귀포는 4명, 금산은 1명의 사서가 확충)이 있으며,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는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사서 2명), 부산여대매직어린이도서관(사서 2명), 용인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문고의 경우 어린이서비스 담당자는 사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도서관에서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라 할지라도 어린이봉사 근무경력이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사서로서의 근무경력 또한 길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근무경력 및 어린이봉사 근무경력을 조사한 최근 자료를 참고하면, 어린이봉사 담당사서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에 근접하는 사람들이 사서로서의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라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70%는 어린이봉사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 응답하였다.<sup>23)</sup>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어린이 봉사를 담당하는 사서의 근무경력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경우, 그 업무가 과중하여 사서들에게 ‘근무기피부서’로 간주되어 주로 ‘신참사서들만 어린이실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계의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실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sup>24)</sup> 있다는 자책어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자.

어린이실의 고객인 유아 및 어린이는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주어야 하고, 천방지축 유아 몇 명만 왔다 가면 책 3분의 2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성인이용자 20명 보다 어린이 5명 상대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직급이 낮으니까 신입이니까 다른 도서관으로 옮겨갈 때까지 보직을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후사당한다는 느낌, 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어린이실이 기피부서다보니 신규직원만 어린이실에 배치하여 처음 도서관에 입사할 때의 마음가짐은 사라지고 열악한 현실에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sup>25)</sup>

이같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들이 제기하는 고충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이 처한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사서 1명), 인표어린이도서관(국내 14개 분관 중에서 대구와 가양분관에만 사서가 1명씩 근무. 그 외 나머지 분관은 사회복지사 또는 독서지도관련 강사가 도서관을 담당) 등이 있다

23) 이 논문의 조사대상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54명, 사립어린이도서관 4명, 공립어린이전용도서관 8명, 초등학교도서관 34명, 기타 2명이다. (김미령, 아동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76.)

24) 한상수,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운동의 전망과 과제,” 어린이도서관길잡이-어린이도서관 설립에서 운영까지(어린이도서관연구소, 2004), p.13.

25) 박경자,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운영 현황,” 미래의 꿈, 어린이와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열린정책세미나자료집 (2005, 5, 16), pp.40-42.

일반적인 현실이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경우 대개 사서 1명이 보조자 1명의 도움으로 주고객인 어린이와 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기에 주로 대출, 반납, 책정리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up>26)</sup> 그러다보니 고객들에게 전문직이기보다는 단순사무직으로 비춰지고 있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실 담당사서들은 어린이사서로서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거니와 어린이사서로서의 근무경험 또한 길지 않다보니 사서 스스로도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어린이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독서교실이 끝나고 독서교실 회지 편집회의에서 만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한여름의 무더위에 버스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먼 길 온 아이에게 자신이 능력이 없어 프로그램이 빈약하지는 않았는지 자꾸만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sup>27)</sup>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어린이사서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실에 배치되고 있어 어린이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봉사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열성인 사서들조차도 자료선정, 이용자봉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독서상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이들 사서들 중 일부는 담당 사서 자신이 가진 개인적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모색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서들은 개인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지도교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한우리독서문화원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독서지도자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공공도서관의 ‘순환근무제’<sup>28)</sup>로 인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적 전문성을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가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서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사서로서의 전문성에 회의적이게 만든다.

한편, 전문적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린이봉사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린이봉사 담당 사서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서가 아닌 외부 사람들도부터도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 실제 그간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운영자나 도서관운동가들, 도서관자원봉사자들은 사서가 어린이봉사에 대한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며,

26) 여건이 좀 나은 공공도서관은 2명의 사서가 담당한다.

27) 박경자, 전계 논문, p.41.

28)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업무는 2-4년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순환근무제로 운영된다.

사서의 전문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은 도서관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도 사서의 존재의미에 대해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Ⅳ. 어린이사서의 양성실태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이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나라의 사서양성관련 교육기관들이 어린이서비스 담당인력을 제대로 공급해왔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아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의문은 보다 강력해진다.

- 어린이실 사서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세미나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역량부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린이실 사서에게 독서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졌으면. -어린이들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연수와 교육이 필요. -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 어린이독서상담, 독서지도 등 전문적인 봉사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sup>29)</sup>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문헌정보학과와 어린이사서의 재교육관련기관의 교육실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이 어린이사서가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 1. 교육과정

우선, 사서를 양성하는 일차적인 교육기관인 문헌정보학과와 교육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문헌정보학과는 ‘전문사서의 배출을 위한 교육’<sup>30)</sup>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전문직사서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이론, 기술을 가르칠 수

29) 박경자, 전개 논문, p.41.

30) 엄영애, “문헌정보학과와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 권 제3호(2003, 9), p.34.

있는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그렇다면 어린이사서양성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양성과 관련해서도 ‘교직과정의 이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서교사양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교과목 중에서도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된 교과목이 분명 존재한다. 대체로 독서지도 및 교육론<sup>31)</sup>, 어린이청소년자료론<sup>32)</sup>, 교육매체론<sup>33)</sup>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교과목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이들 관련 교과목의 편성현황을 전국 4년제 대학 32개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sup>35)</sup>

<표 1> 어린이사서 양성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

교과목	편성학과(학과수)	비 고
독서지도 및 교육론	건국대, 경기대, 경성대, 경북대, 공주대, 광주대, 대구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신라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한성대 (23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대는 교양교과목으로 편성</li> <li>· 공주대는 독서교육론 I, II로 구분하여 두 과목 편성</li> <li>· 명지대는 청소년독서교육</li> <li>· 숙명여대는 독서치료</li> <li>· 한성대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론이라는 교과목으로 편성</li> </ul>
어린이청소년자료론	건국대, 대전대, 부산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7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국대는 아동 및 청소년자료</li> <li>· 대전대와 신라대는 아동도서</li> <li>· 부산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자료라는 교과목으로 편성</li> <li>· 연세대는 아동자료이용론, 청소년자료이용론이라는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2과목 편성</li> <li>· 이화여대는 아동/청소년자료</li> <li>· 전북대는 아동·청소년정보라는 교과목으로 편성</li> </ul>
교육매체론	공주대, 부산대 (2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대는 교육공학, 교수매체운영론이라는 교과목으로 2과목 편성</li> </ul>

위 <표 1>을 보면, 세 교과목 중에서 4년제 대학 32개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주로 편성하고 있는 교과목은 독서지도 및 교육론이다. 이도 모든 대학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대학 전체대상 학과의 약 71%만이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자료론이나 교육매체론은 일부

31) 독서지도 및 독서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은 학교마다 독서지도, 독서지도론, 독서교육, 독서교육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32) 어린이와 청소년자료와 관련된 교과목은 아동도서, 아동자료이용론, 청소년자료이용론, 아동/청소년자료, 아동·청소년정보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다.

33) 교육매체와 관련된 교과목은 교육공학, 교수매체운영론, 교육매체론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다.

34) 이들 세 교과목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양성과정도 관련된 교과목이기도 하다.

35) 이는 2005년 7월 15일 현재 4년제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32개 대학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대학에서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교과목 중 하나의 과목도 편성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 무려 8개 학과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들 세 교과목 중에서 독서지도 및 교육론과 어린이청소년자료론을 복수로 편성하고 있는 학과는 6개 대학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자료론, 독서지도 및 교육론, 교육매체론 3과목을 동시에 편성하고 있는 학과는 1개 대학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편성 현황을 볼 때 연구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문헌정보학을 졸업한 인력이 어린이사서로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관련 교과목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규모의 면에서 충분하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와 같은 문헌정보학과와 어린이사서양성과 관련한 교과목의 부족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현재 민간의 어린이도서관운영자나 운동가들로부터 그 전문성의 측면에서 비판의 소리를 적지 않게 듣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는 어린이에 있어서도, 어린이책에 있어서도, 어린이서비스에 있어서도 비전문가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서에 대한 불신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의 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의 ‘도서관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도서관은 사서가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다’<sup>36)</sup> 라고 말한 민간도서관의 활동가의 말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사서를 양성하는 일차적인 교육기관인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사서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문헌정보학과 교육을 받고 졸업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서 스스로도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맞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떳떳이 주장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 졸업이후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 사서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혹은 공식적인 재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36) 이와 같은 이야기는 최근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주관의 ‘어린이 도서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으며(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5. 3. 24), 최근 도서관매일링리스트에 실린 내용이기도 하다 도서관매일링리스트에 실린 관련내용 부분을 고스란히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청와대비서실에서 도서관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 그날 대화 중에 나왔던 ... 얘기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사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도대체 대민봉사 또는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지역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기간만큼이나 도서관 일에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께서 “학교를 교사의 것이라 하지 말고, 도서관을 사서의 것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어느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사서가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였고 주변에 제쳤던 몇 분도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서글픈 사실이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가끔은 듣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반론은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반박하고 변명해 봐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해명은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문정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지요, 앞장서서 도서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그런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부터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문정인들이 진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 [인용 2005. 7. 26].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재교육과정으로 개최되고 있는 독서지도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한우리독서문화원,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 사회단체나 민간이 개최하는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업무적 도움을 받는다. 이들 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들 재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앞서 일차적인 사서양성기관인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사서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일차적 교육을 받고 난 뒤 배출된 사서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 교육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린이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사회적 요구와 도서관현장에 부응하는 어린이전문사서를 공급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 2. 재교육과정

현재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사서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민간어린이도서관인 인표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푸른꿈어린이도서관과 시민단체인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등 다양하다.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비롯하여 기타 사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사서직의 재교육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봉사담당사서의 재교육 분야는 주로 독서와 관련한 분야이다. 올 2005년에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은 독서지도과정과 독서치료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지도과정은 도서관의 독서지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어왔다. 독서치료과정은 작년(2004년)부터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이들 교육은 유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기간은 보통 일주일 미만이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세부 교육내용을 2005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봉사 담당사서 교육프로그램

교육 과정	독서지도 기초과정	독서지도 심화과정	독서치료 기초과정	독서치료 심화과정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론</li> <li>· 독서지도를 위한 자료선정</li> <li>· 독서프로그램의 실제</li> <li>· 독서교실운영방법</li> <li>· 발달 단계별 독서지도</li> <li>· 읽기 중심의 독서지도</li> <li>· 창의적 독후활동지도</li> <li>· 독서지도를 위한 아동청소년심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구연</li> <li>· 글쓰기지도</li> <li>· 독서토론</li> <li>· NIE</li> <li>· 독후활동</li> <li>· 논술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치료의 이해와 전망</li> <li>· 도서관자료와 독서치료</li> <li>· 독서치료를 위한 발달심리학</li> <li>·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li> <li>· 상담자의 발문 기법</li> <li>· 독서수준의 진단과 평가</li> <li>·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적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향상을 위한 독서치료</li> <li>· 아동 독서치료</li> <li>· 청소년 독서치료</li> <li>· 성인 독서치료</li> <li>· 독서부진을 위한 독서치료</li> <li>· 특수아동 독서치료</li> <li>· 대인관계를 위한 독서치료</li> <li>· 글쓰기를 활용한 독서치료</li> </ul>

위 〈표 2〉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무적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기회도 모든 어린이서비스 담당 사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은 그 교육대상을 현직 사서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기에 민간에서 어린이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서비스담당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보니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나 도서관운동가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도서관을 새롭게 설립운영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의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일산의 푸른꿈어린이도서관 등의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도서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올 2005년까지 매년 도서관현장사서들과 민간의 도서관설립자나 운영자들을 위해 어린이도서관학교라는 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sup>37)</sup> 일산의 푸른꿈어린이도서관에서도 2004년에 어린이서비스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와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푸른꿈 어린이도서관학교를 기획, 진행하였다.<sup>38)</sup> 이들 민간어린이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들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책, 어린이 서비스, 어린이건축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을 둘러싼 총체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가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는 ‘민간도서관을 만들고 꾸러가는 일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어디에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다’<sup>39)</sup>라는 인식 하에 어린이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프로

37)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은 2000년 2월에 설립된 민간의 어린이문고이다. 2003년에는 느티나무문화재단이라는 재단 법인을 설립하였다.

38) 일산 푸른꿈도서관은 2002년 설립된 민간의 어린이문고이다.

39) 느티나무도서관학교 제4기(2005년) 모집 리플렛자료 참고.



〈표 3〉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노티나무어린이도서관 (2005년도)	푸른꿈어린이도서관 (2004년도)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의 사회적 환경과 도서관의 역할</li> <li>· 어린이도서관과 지역공동체문화</li> <li>·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현황과 전망</li> <li>· 어린이책 출판과 유통현황</li> <li>· 도서관 운영계획-문화기획의 측면에서</li> <li>· 어린이도서관의 건축과 실내구성</li> <li>· 어린이도서관의 자료수집과 관리</li> <li>·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역할과 업무</li> <li>· 도서관운동의 역사와 평가 그리고 전망</li> <li>· 어린이도서관(실) 및 관련기관 견학, 모니터링 사례발표 및 설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전망과 과제</li> <li>·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민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li> <li>·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린이도서관</li> <li>· 어린이도서관 운영실무와 사서의 역할</li> <li>· 어린이도서관과 '마을만들기운동'</li> <li>· 어린이도서관운영체계수립</li> <li>· 작은어린이도서관의 비전과 계획</li> <li>· 어린이의 언어발달을 고려해서 도서관사서가 해야 할 독서상당</li> </ul>

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민간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현직사서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실 사서를 비롯하여, 민간의 도서관운영자, 도서관활동가, 도서관운동가, 자원봉사자,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또 하나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서교육프로그램으로는 인표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에스콰이어문화재단에서 설립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1990년 5월, 상계동에 제1호 인표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한 이후 전국에 14곳, 중국 6곳,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등 해외에 8곳, 총 22곳에 동일 모델의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sup>40)</sup> 분관은 주로 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봉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자료구입, 프로그램의 기획과 보급, 분관담당자의 교육 등 분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표어린이도서관본부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강연회와 워크숍 형식으로 도서관담당자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인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정기강연회(2005년도 봄, 2004년 봄)	정기워크숍(2004년도 가을)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지도</li> <li>· 어린이도서관의 역할과 독서지도의 실제</li> <li>· 본부와 분관 정보나누기(이상 2005년 강연회)</li> <li>· 전산교육 1, 2</li> <li>· 어린이도서관 운영실무: 대출/열람봉사, 교육 문화활동 기획과 운영</li> <li>· 본부와 분관 정보나누기(이상 2004년 강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관 열람봉사현황 소개 및 본부와의 대화</li> <li>· 도서관행사배우기 1</li> <li>·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어린이도서관의 과제</li> <li>· 도서관행사배우기 2</li> <li>· BookArt : 창의력을 키워주는책만들기 활동</li> <li>· 도서관행사배우기 3</li> <li>· 도서관견학</li> </ul>

40) 인표어린이도서관홈페이지, 〈<http://www.inpyolib.or.kr>〉 [ 인용 2005. 8. 9].

〈표 4〉를 보면, 인표어린이도서관본부의 교육은 어린이 책과 독서교육방법, 도서관봉사프로그램 기획과 실제와 같은 도서관운영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동화작가나 도서관계인사, 어린이책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는 강의형식을 취하며 각 분관의 활동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전적으로 분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 구성된다고 한다.<sup>41)</sup>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교육 프로그램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어린이책비평과 어린이독서문화운동을 주도하며 어린이책과 독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전파시켜 온 시민단체이다. 1980년 창립이후 20년 넘게 어린이서적에 대한 비평활동,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목록집발간, 어린이도서관관련 각종 세미나, 어린이 독서교실 등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결과 현재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어린이 책과 독서’에 있어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장에서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어린이 책과 독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실 담당사서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사서교육프로그램은 1997년에 서울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사서와 수서실 어린이책 담당자를 위한 세미나를 처음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후 매년 사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sup>42)</sup> 이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사서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회원으로 참가하여 별도의 신입회원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책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가 가지는 어린이책에 대한 전문적 집단으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책에 관심있는 부모들, 학교교사들, 어린이책출판에 종사하는 사람 등 어린이책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각 지역 회원들의 경우 어린이책과 독서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독서교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들을 비롯한 독서교육과 관련한 외부인사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독서교육은 사서가 주도하는 업무가 아니라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매우 아이러니한

41)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5년 8월 9일 오전 11시 30분

42) 1997년 당시 이 교육에는 서울시 20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10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사서와 부평, 과천, 평촌, 평택 4개 지역 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사서 22명이 참석하였다.

〈<http://www.childbook.org/data/lib01.html>〉 [인용 2005. 8. 8].

〈표 5〉 어린이도서연구회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신입회원교육 (1997년)	신입회원교육 (2004년)	사서교육 (1997년)	사서교육 (1999년)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문화운동</li> <li>· 아동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li> <li>· 아동발달단계와 독서교육</li> <li>· 우리나라 아동문학사 1, 2</li> <li>·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일반론, 창작동화)</li> <li>· 서양아동문학의 흐름 1, 2</li> <li>· 옛 이야기의 본질</li> <li>· 동시, 어린이시</li> <li>· 그림책의 세계</li> <li>· 좋은 그림책이란</li> <li>·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인물, 역사, 과학, 환경)</li> <li>· 우리말 바로쓰기 1, 2</li> <li>· 동화비평</li> <li>· 동화토론의 실제</li> <li>· 독서교육방법 1, 2,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도서연구회 역사, 정신, 하는 일</li> <li>· 들꽃같은 동화읽는 어른모임</li> <li>· 마음을 살찌우는 책읽기</li> <li>· 회보와 글쓰기</li> <li>· 우리 회 홈페이지</li> <li>· 어린이책 출판흐름과 경향</li> <li>· 우리나라 창작동화 1, 2, 3</li> <li>· 이오덕문학관 조명</li> <li>· 자연 어린이책</li> <li>·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li> <li>· 그림책의 세계</li> <li>· 청소년에게 어떤 책을 줄까</li> <li>· 어린이책 문화운동</li> <li>· 옛이야기 바로보기</li> <li>· 다른 나라 어린이문학</li> <li>· 어린이도서연구회와 도서관 운동</li> <li>· 책에서 만나는 도서관</li> <li>·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li> <li>· 시민운동의 의미와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독서문화운동과 사서의 역할</li> <li>· 바람직한 도서관 모습</li> <li>· 그림책과 옛이야기</li> <li>· 우리나라 창작동화와 외국 창작동화</li> <li>· 독서지도의 실제 1: '원숭이 꽃신'을 읽고 그림책 만들기 and 연극하기</li> <li>· 독서지도의 실제 2: '할아버지의 컴퓨터'를 읽고 이야기나누기와 감상문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도서연구회 역사, 정신 하는 일</li> <li>· 그림책의 세계 1, 2</li> <li>· 문학이란 무엇인가</li> <li>· 아동문학입문 1, 2</li> <li>· 옛이야기의 세계</li> <li>· 옛이야기 바로보기</li> <li>· 창작동화 1 2 3 4</li> <li>· 독서지도개론</li> <li>· 동시의 세계</li> <li>· 좋은 동요배우기</li> <li>· 역사, 인물에 관한 책</li> <li>· 과학, 환경 지식에 관한 책</li> <li>· 문학작품을 왜 읽는가</li> <li>· 외국동화</li> <li>· 비평방법과 실제 1, 2</li> <li>· 어린이문화운동사</li> </ul>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sup>43)</sup> 이러한 상황에 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사서가 어린이책과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들은 어린이책과 독서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목말라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sup>44)</sup> 사서에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은 외부기관의 손을 빌려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5)</sup>

이외에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4년, 2005년에 걸쳐 실시된 스토리텔링전문교육과정도 어린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어린이담당 사서 및 운영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봉사 담당사서들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문헌정보학도가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현직사서들의 재교육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현직사서들이 체계적이며 손쉽게 재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서

43)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의 경우 사서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강사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44) 김혜원, “이제 그 작은 책이 보인다-공공도서관어린이실 사서 세미나를 마치고”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childbook.org/data/lib01.html>> [인용 2005. 8. 8].

45)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경우 어린이도서연구회 뿐만 아니라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와 같은 독서관련시설기업을 비롯하여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독서지도사과정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들 기관에서 배출된 독서지도사들을 외부강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들의 공식적인 재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제한된 인력만이 참여할 수 있을 뿐이고, 민간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도 사서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재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독서지도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린이사서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기에는 현재의 재교육프로그램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V.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개발 방안

앞서 우리나라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들 교육과정은 어린이사서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도서관 현장에서도 어린이사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린이사서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 1.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정비와 강화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은 문헌정보학과에서 우리 사회와 도서관현장의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는 일이다. 현재 문헌정보학과는 어린이사서 양성을 위한 일차적인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어린이사서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의 어린이서비스 담당자로 복무하게 되는 사서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서들은 업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사서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화된 교과목을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문헌정보학계에서 어린이전문사서의 배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체제를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도서관현장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에 대한 학계의 공개적인 논의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연구자가 가진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학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내에 ‘어린이사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교과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심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에 어린이전문사서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어린이사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과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 ‘어린이와 자료를 매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한 세부교과목을 개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사서의 양성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자료, 독서지도론 및 교육론, 교육매체론이라는 기존 교과목이 제대로 편성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와 관련교과목의 편성현황을 보면 주로 독서교육 및 지도론에 편중해서 편성되어 있다. 어린이사서에게 어린이자료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는 이와 관련된 교과목이 없는 곳이 많다. 어린이자료와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과 이들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자료와 관련된 교과목은 어린이사서들에게 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책, 오디오비디오자료, 웹사이트, 전자자료 등 각종 어린이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선정과 개발, 평가(서평능력을 포함한)를 비롯한 추천활동은 어린이도서관 및 어린이사서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어린이 주위의 정보공해와 자료 오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가 마음 놓고 자료를 고를 수 있게”<sup>46)</sup> 함과 동시에 어린이책 출판과 관련해서는 좋은 어린이책의 출판을 자극하고 고무함으로써 어린이책 출판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는 어린이사서가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기에 어린이자료와 관련된 교과목은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교과목의 편성 외에 어린이사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교과목도 있다. 우선,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관련한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어린이사서들에게 있어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전문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별 어린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어린이의 심리, 어린이의 요구와 흥미, 어린이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어린이관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 유아교육학

46) 김효정,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대논문집(인문과학편), 제32집(1989), p.89.

등과 협력하여 관련 교과목을 개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또한 어린이서비스의 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교과목도 추가적으로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발달상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독서지도, 독서상담, 독서치료, 독서클럽, 스토리텔링, 북토크 등을 비롯하여 어린이의 상상력과 인지를 개발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와 관련한 능력이 이 교과목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각종 자료와 시설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을 구축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도서관의 자료, 인력, 시설, 예산과 관련한 제 요소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교과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문어린이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교과목 강화와 어린이사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을 통해 어린이사서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재교육과정의 정비와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사서들의 재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게 일어나고 있으나 사서를 비롯한 어린이도서관운영자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사서의 공식적 재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교육대상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등 사서 개인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재교육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사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교육과정 또한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수준별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어린이사서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재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어린이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설정하고, 이러한 역할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어린이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고충과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관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사서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전문직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일

47) 참고로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와 아동학과 관련 다양한 교과목과 더불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편성될 법한 아동도서관연구, 독서지도, 아동문학, 아동미디어교육과 같은 교과목들도 편성되어 있다. 실제 이 학과를 졸업한 인력들이 어린이책과 독서지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도서관의 어린이담당사서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sup>48)</sup> 할 것이라고 하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될 어린이사서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어린이봉사 분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마지막으로 어린이봉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그에 따른 어린이전용도서관 설립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실무를 비롯하여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서비스분야에 축적된 연구성과가 많지 않아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현장에서의 어린이서비스 개발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문헌정보학자들의 학문적 관심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전문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과목 연구를 비롯하여 어린이사서의 직무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 또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특히, 어린이책과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은 업무적 어려움이나 성과를 비롯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사서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관련 업무를 개발하게 되고 전문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문헌정보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학계와 현장이 함께 연구하고 공유해야 그 유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 4. 관련 기관 및 관련 학문과의 교류와 협력

마지막으로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관계있는 기관이나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교류할 뿐 아니라 관련 학문과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를 비롯하여 어린이 교육 및 문화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어린이출판관련 기관, 어린이책 관련 저자, 편집자, 일러스트레이터 등과의 교류를 통해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타학문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어린이, 어린이자료 및

48) 이선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설립 및 비전,” 미래의 꿈, 어린이와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5, 5, 16), p.10.

서비스와 관련한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이 분야에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Ⅵ. 결 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린이사서의 자질 및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어린이사서의 역할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지 그 여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힌 사실과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들 교육과정은 어린이사서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도서관 현장에서도 어린이사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재교육과정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 내에 전문적인 어린이사서를 양성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직사서직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재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 또한 도서관계가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운영과 서비스, 관련교과목의 개발에 대한 문헌정보학자들의 관심을 비롯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사서들 또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학습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어린이, 어린이자료,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어린이사서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것은 현재 문헌정보학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사서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문헌정보학과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과정인지, 현재의 우리나라 도서관운영의 흐름에 적절한지, 사회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수시로 검토하고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전문사서'에 대한 우리사회와 도서관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과적 차원의 고민과 모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